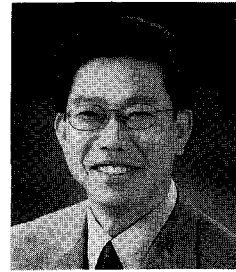




브로일러의 품종개량 방향(Ⅱ)



송 덕 진

<지난호에 이어 계속>

4. 새로운 대안

품종개량은 주로 일당 증체, 사료효율, 가슴살 용적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런 요소들을 개선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한계가 어떤식으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성장이 빠른 품종일수록 그만큼 다른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로는 크게 닭 자체와 소비자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증체가 빠른 닭일수록 소화기관, 골격 등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육질이 연해 고기맛이 떨어지게 되어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기피 할 수도 있으며, 동물의 복지 측면에서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사료효율개선에대한 유전적 한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기록을 보면, 2Kg체중 도달에 FCR 1.5인 계군이 있다. 물론 그러한 기록이 나오도록 조성된 사료를 급여했겠으나 문제는 이와 같은 사료가 경제적인 가격으로 상용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료와 품종도 농장관리를 개선시킴으로써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품종 개량보다는 기존의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내고 개선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대사성 질병

지난 50년간의 유전 선발에의한 품종개량은 기본적인 생산요소 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 왔다. 현재의 닭들은 사료섭취, 활동성, 다리이상, 면역기능, 각 장기의 기능 및 크기, 깃털 등에서 과거의 닭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영양소 요구 뿐 만아니라 대사성 질병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들면, 육종 학자들은 가슴살 부위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에 따라 다른 부위는 상대적으로 왜소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브로일러의 영양소 요구량을 변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부위의 비율변화는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가져와 기립 불능이나 연골손상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품종개량에 사용되는 사료는 옥수수-대두를



기본으로 하는 사료로서 깃털감소, 연골쇄약, 복수증, 들연사 증후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육종 전문가들은 닭이 가지고 있는 유전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 영양사료를 원하는 반면, 영양학자들은 가장 경제적인 사료를 만들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모순은 성장 균일도 저하, 사료효율 저하, 잠재능력에 못 미치는 성장률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마디로 품종개량과 영양은 경제성면에서 상호간이 한계를 갖고 있다.

6. 질병저항력

성장률이 빠른 품종일수록 건강상의 문제점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육종회사도 질병 저항력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저항력이 높은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나, 투자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마렉(Marek)이나 복수증과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질병은 백신이나 기타 약제로 대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DNA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질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 수 있으나 이 또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육종회사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7. 시장 선호도

또다른 관심사항은 최종 품종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이다. 이미 여러 시장에서 성장률과 낮은 생산비용, 맛, 육색 등으로 인해 백색계를 표준 품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재래식으로 사육된 닭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육색이 노란 닭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육색이 노란닭의 가격이 50~100% 더 비싸게 팔리고 있으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50~180일에 출하되는 중국 재래종인 이 닭은 맛이 좋고, 순하고, 질병에도 강한 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깃털, 부리, 정강이가 황색을 띄어 일명 삼황계(three yellow bird)로 불리는 이 닭은 육즙, 지방 침착도, 육색, 연도에 따라 품질이 정해진다. 중국에서는 육계시장이 3가지로 분리되는데 토종닭을 최고로 그다음은 토종과 수입종의 교배종이고 마지막이 백색종을 최하로 여긴다. 이러한 선호도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위해 육종회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며, 엄청난 황색육 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계**

